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시·도 협력땀 국비 확보 등 성과

광주·전남 상생 신규사업 선정 의미와 과제

한전공대 설립·무안공항 서남권 거점 육성 등 탄력 기대
군공항 이전 지자체·주민 설득, 국방부 적극 협조 있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7기 상생과제로 꼽은 신규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한전공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시·도가 이를 민선 7기 신규 상생 협력과제로 선정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양 시·도가 적극 협력해 정부를 설득한다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도 상당한 이점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 좋은 성과도 기대된다. 우선 한전공대 설립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적극 협력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립 지연·규모 축소 등을 불식시키고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은 채 설립 지연이 되지 않도록 상

생 협력한다고만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나누시를 비롯한 인근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퉀 한전공대 유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입지 문제는 양 시·도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불씨’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민선 7기 광주시·전남도의 첫 상생 결과물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첫 단계로 보여진다. 특히 시·도가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최대 현안 과제였던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우선 민간공항 이전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간공항 통합을 시작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지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지자체와 주민 설득, 이전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이 우선 해결 과제라는 점에서 양 시·도와 함께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목된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어 왔었다. 하지만, 전남도가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비 65억원을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시·도는 따라서 이번 신규 협력과제로 합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치 활동을 공동 전개하기로 해 국비확보 등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금까지 15개 협력과제를 완료했고 15개 협력과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광주하계U대회와 국제농업박람회 등 양 지역에서 개최한 국제대회나 박람회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제2남도학숙 건립과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등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력 성공사례로 꼽힌다. 또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지정, 광역소방행정 협업체계 구축, 유라시아철도 호남축 연계 등도 공동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어머니” “상철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첫날인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삼(92) 할머니가 북측 아들 리상철 씨와 만나 오열하고 있다.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은 한뿌리...새로운 정도 천년 함께 도약”

이용섭·김영록 발언으로 본 상생 현주소

“광주·전남은 한 뿌리로 공동 운명체입니다. 각자도생 하면 그 끝은 공멸입니다. 경계를 넘는 협업·상생으로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배려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역사자지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의 정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남이 숭선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광주·전남은 경제·문화·역사적으로 한뿌리 한몸으로서 새로운 정도 천년을 맞아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서

재발실에서 민선7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양 시도의 상생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소외는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경제적 낙후는 광주·전남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광주에 전남을 더하고, 전남에 광주를 보태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사사건건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면 끝은 공멸”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이해관계에 벗어나 동반성장할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도 “광주·전남은 역사적·문화적

으로 한 뿌리이고, 경제적으로도 뿔레야 뿔 수 없는 경제공동체”라며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새로운 미래천년을 품고 도약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도 천년을 맞아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상생하고 노력하겠다”면서 “상생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더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철 동신대 교수는 “민선 6기에서는 예민한 문제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선 7기에서는 모든 현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에서 비전을 볼 수 있었다”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어느 때보다 의지도 높은만큼 성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요약)

광주와 전남은 대대로 한 뿌리라는 공동된 인식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4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가 탄생한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미래 천년을 희망과 번영의 땅으로 일구어 나가기 위해 광

주·전남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서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중략> 지난 4년 동안 광주와 전남이 협력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시·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

습니다. 앞으로도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인 광주와 전남은 한마음으로 350만 시·도민을 중심에 두고,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적으로 협력하여 새천년에는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 일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가족 생사확인·고향방문 등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서 밝혀
금강산 면회소 상시상봉 장소로 활용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확인·화상상봉·상시상봉·서신교환·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금강산에서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말로 시간이 없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남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로,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의제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0 7 6 2 1 4 3 0 2
0 5 1 7 9 8 0 2
0 0 0 1 1 0 0 0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업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